

34호

2021 봄/여름

가은 다솜 음

가은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34호 가온다솜

- | | |
|-----------------------|-------------------|
| 03 실로암 칼럼 | 11 외부 지원 및 도움의 손길 |
| 04 실로암 이야기 | 12 시각장애인 비대면 복지 |
| 05 코로나19 극복 "효명 프로젝트" | 13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
| 09 건강정보 | 15 더불어 사는 이야기 |
| 10 신입 직원소개 | |



원장	법인명	법인대표	이용정원 30명
김무경	사회복지법인	김선태 목사	이용현원 30명
설립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정원 29명
2010년 7월 19일			직원현원 29명

실로암 칼럼



실로암효명의집
원장 김무경

어떤 갑부가 있었는데, 그에게 무남독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윗감을 고른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젊은이가 몰려들었습니다.

갑부는 넓은 저택 가운데 있는 수영장에 악어를 풀어놓고 자신의 건너편에 젊은이들을 서게 한 뒤 헤엄을 쳐서 건너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갑부의 사위가 되려면 악어가 득실거리는 수영장을 헤엄 쳐서 건너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입니다.

누구도 쉽게 물로 뛰어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순간,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력을 다해 악어 떼를 피하여 수영을 하여 가까스로 갑부에게로 건너왔습니다.

갑부는 젊은이의 용맹을 보면서 사위로 삼겠다고 반갑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는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누가 내 등 떠밀었어!”

자기가 뛰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밀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위가 되려는 마음보다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돌이켜보면 등 떠밀려 살아온 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등을 밀었는데, 그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고 간, 개신교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은퇴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은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죽는 힘을 다해 살아왔더니 지금 여기 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실로암효명의집이 올해로 개원 1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많은 분이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다 한(恨)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恨)이 서린 삶을 보면,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서 살기 위하여 죽을힘을 다해 헤엄쳤던 그 젊은이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사히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인 나는, 내 등을 민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밀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앞서가며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가진 종교나 신념에 따라 각자 다다를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목적지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믿는 분도 있지만, 극락왕생 윤회한다는 것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잡초와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로부터 등 떠밀려 산 인생, 이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력을 다하자고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 실로암 이야기



저는 실로암효명의집 최영훈 건강지원팀장입니다.

2012년 4월 1일은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13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은 제 성격상 오랜 기간 장교의 시간을 통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전 직장은 병원(정신과 폐쇄 병동) 특성상 폐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들과의 소통이나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 순간, 고민이 많아졌고 급기야 직장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환자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인간적으로 케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해결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같은 직장동료였던 지인이 사회복지 공부를 권유하면서 전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 지금의 직장인 실로암효명의 집에 간호사로 입사한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가주인시설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저로서는 조금이나마 미리 지식습득을 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주인들의 건강을 오롯이 혼자 책임 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날부터 저에게는 큰 부담감으로도 다가왔습니다. 또한, 전 직장과 전혀 다른 화기에에 한 분위기에 혼란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주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찾

던 그런 시설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와 막중한 책임감을 버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저로 인해, 누구에게도 피해는 주지 말자고 결심하였고 특히, 거주인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저의 일상생활의 모든 생각은 거주인들의 건강에만 집중하였고 부족한 부분도 여러 방법으로 틈틈이 채워가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위협했던 순간들도 여러 차례 발생되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건강지원 팀장으로 10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제 자신에게 조금은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장님, 국장님, 우리 팀원들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발생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 것처럼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거주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적 향상이 꾸준히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 “효명 프로젝트”(1월~ 6월)

코로나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인들의 무리한 일상생활 및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외식체험



자립지원서비스(준비가정)



물리치료



작업치료



휴바스포츠



오감교실



생일잔치



특별행사



체력단련



스누젤렌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문화정보나눔교실



소방교육



소규모 나들이



건강산책



장애인의 날(마장저수지)



거주지원 네트워크사업

봄이 시작되는 3, 4월에는 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 거주인들과 함께 오랜만에 야외활동이 많았던 달이기도 했습니다. 소규모 나들이로 회암사지 박물관에 방문하여 산책 및 맛있는 점심 식사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었으며,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는 거주인들이 좋아하는 바비큐를 본관 뒷마당에서 진행되어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효명의집 근처에 있는 마장저수지로 산책을 다녀와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속에 기분전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특식제공



건강검진



가족간담회



재난대피훈련



성폭력예방교육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움직임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시범 보인다. 촉각 신호와 언어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세 교정 운동을 통하여 자세 교정은 물론 신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촉각과 언어를 사용하여 바른 자세를 일러주고 일상생활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 준다.

댄스, 요가, 움직임 교육 같은 연령에 적합한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자세의 기본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고관절을 굴곡, 신전시키는 훈련을 하여 보폭을 늘리고, 달리기를 할 때 음성 만보계를 사용하여 연습하면 보행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안전한 길에서의 반복 훈련을 통해 보행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운동 전 고려사항

- ① 운동을 하는 장소는 밝은 장소가 좋으며, 출입구가 있을 경우 아예 닫아 두거나 반대로 활짝 열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실내 운동의 경우 출입구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운동 시작 전 자유롭게 주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위를 관찰하고, 운동 도구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운동 시작 전 보호자와 함께 바닥에 표시된 돌출된 선과 같은 표시를 확인하여 경계를 인지하고, 경기장을 돌아보며 거리를 확인한다.
- ④ 주위의 장애물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위 사물에 대한 관찰을 한 후에는 사물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한다.
- ⑤ 새로운 동작을 알려줄 때에는 언어적 설명과 함께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 신체 접촉을 통해 자세를 알려줄 때에는 미리 말을 하고 만져야 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해야 하며, 움직임을 알려 주면서 동작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 ⑥ 되도록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기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동작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 ⑦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쪽, 저쪽이라 하지 말고 오른쪽, 왼쪽이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 ⑧ 운동은 지나치게 경쟁적일 필요는 없으며 서로 도와가며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21년 효명의집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김덕규(조리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로암효명의집에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규 조리원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시설이 처음이라 낯설고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주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업무도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식사와 힘든 가운데서도 힘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행복이 가득하고 든든한 효명의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생활재활교사)

안녕하세요? 실로암효명의집에서 근무하게 된 이영숙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제가 입사 한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훌쩍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어색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거주인들 덕분에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케어할 수 있는 생활재활교사가 되겠습니다.



권순현(생활재활교사)

안녕하세요 7월 입사한 권순현 생활재활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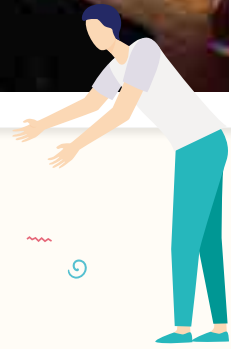
여러 거주인들과 직원 여러분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며 거주인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거주인들과 여러 가지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외부 지원 및 도움의 손길

SSCL 장애인 신체기능향상 프로젝트 “꿈의 엔진을 달다.” 선정(스누젤렌 교구) ...



(주)아모스침대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지원사업” 선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각장애인들의 비대면 복지 바람~

코로나19로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여기 저기 붙은 한글 필름 탓에 울룩불룩했던 점자는 평평해졌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필수인 QR코드는 조작이 복잡해 아직 낯설기만 하다. 야외 생활은 고사하고 점자 자료가 마련된 복지관과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취미활동조차 어려워졌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적 차별은 더 벌어졌다.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듣는 것이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주로 고령자 혹은 중도실명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극단적으로는 문화적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간이 되면서 어느 한 복지재단에서 무료로 음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책과 드라마, 영화를 음성 언어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조작하기 쉬운 리모컨 형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효명의집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거주인 대상의 프로그램 문화정보나 농교실에서 일상소식을 알려주고 유튜브나 라디오 사연 등을 틀어주어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 활동이 있을 시 유튜브 공연을 틀어주어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보호자간담회나 행사시도 ZOOM을 활용

한다. 회의나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현대에 맞춰 직원 결혼식이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거주인들에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들려주거나 가족들과 면회가 제한적인 거주인들을 위해 영상통화를 지원하여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도서제작 플랫폼 [마이픽]구축을 하게 되었다. [마이픽]은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도서를 제작하는 크라우드링 소식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중단한 상황에 기존 오프라인 자원봉사 형식을 탈피한 새로운 전자도서 제작방식을 도입하여 자원봉사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도서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자 비대면 e북제작봉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자원봉사를 실현함으로써 다수의 자원봉사를 확보하고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코로나 19가 사라지더라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다. 변화된 시대에 맞춰 우리 시설도 시설 안에 집단에서 거주인 개인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맞춰 조금씩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변화할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

실로암효명의집 대외홍보로 SNS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시설 소개글을 보고 후원 의사를 밝힌 유원열 후원자님은 전도사 직분으로 교회에서 주일 새벽예배에서 설교하였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21년 동안이나 사레비 없이 설교했는데 다른 목사가 부임하면서 바로 사임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준 100만원을 아내 몰래 보내겠다며 다음 날 바로 실로암효명의집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개인후원자로부터 이렇게 큰돈을 후원받기는 흔한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사연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유원열 후원자님에게는 어릴 때 감기약을 잘못 복용하여 발달장애인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마흔이 다 된 아들을 부인과 번갈아가며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중 매월 5만원씩 정기적으로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카페모아 봉천점 애길 했더니 그길로 방문하여 인증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자분들의 귀한 사랑이 모여서 우리 거주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원열 후원자(카페모아 봉천점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바쁘신 거 같아서 메시지 남깁니다. 4년 전에 같은 교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친구 하나가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으로 제가 조그맣게 장학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멤버들과 미팅에서 소액이지만 실로암에 후원하려고 하는데 어떡하면 되나 해서요? 워낙 작은 장학회고 여기저기 후원하는 데가 있어서 1,000불밖에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 부끄럽지만, 실로암효명의집에 후원해 드리면 좋은 곳에 쓰실 것 같아서 메시지 보냅니다. 연락 주세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주 귀하게 우리 장애인 거주인들을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친구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장학회를 통하여 저희가 사랑을 받으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멀리 이곳까지 사랑이 왔습니다. 적다고 하지만,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아주 큰 사랑입니다. 가진 자들의 억만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또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귀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Team Eddie라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첫 건축 의뢰가 들어와 잘 마치고 그 건축수익의 일부’를 보내신다며, 보내주셨습니다.

“국제송금을 통해 2회에 걸쳐 정성스런 후원금(약 220만원)을 보내주신 최승환 선생님과 Team Eddie직원 여러분에게 저희 실로암효명의집 직원과 거주인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거주인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하고 싶는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정하라고 하여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가벼운 여름철 이불로 그 사랑을 안겨 드렸습니다. 베푸신 사랑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면상 일일이 귀한 사랑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귀한 이름만 따로 새겨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Team Eddie(건축회사)

더불어 사는 이야기

후원금 결산보고(1~6월)

(단위: 원)

세입		세출	
이월금	25,705,848	사무비	9,376,372
지정후원금	1,756,000	재산조성비	8,114,460
비지정후원금	12,758,000	사업비	4,460,250
합계	47,006,588	합계	21,951,082

후원자 현황(1~6월)

단체 후원자

개인 후원자

(주)영원무역
(주)푸드머스,
블레싱마케팅
씨드앤트리
아모레퍼시픽
양주연화푸드마켓
태원엘리베이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해피빈
TEAMEDDIE

강영순, 김경민, 김덕규, 김무경, 김미경, 김민경, 김병규, 김선태, 김순희, 김영선, 김영준,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종덕, 김진희, 김태웅, 김태웅, 김태훈, 김형도, 김호직, 남상예, 남성우, 박경희, 박민재, 박성일, 박수정, 박인수, 박주희, 박찬재, 백기령, 오창래, 유원열, 유홍진,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복규, 이순희, 이승욱, 이영숙, 이영태, 이재영, 이진실, 이진용, 이현규, 이혜지, 임준규, 장혜승, 전승미, 전예리, 전주미, 정구연, 정세훈, 정인욱, 조경조, 최동익, 최영아, 최영훈, 최은미, 최준호, 추교훈, 한재근,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현재순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령의집
결연후원	장애인과의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말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세상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속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마다 마음을 잡고 일어서기란
너무 힘들지만

희망이란 단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이든
할수 있게 해주는 마법같은 감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들 마음속에
한줄기 위로가 될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